우리 연합회에서는

'2008년 제14차 점역 교정사 시험' 실시

시각장애로 인해 일반 출판물에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이 양질의 점자출판물을 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통일되며 체계적인 점역 및 교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담당할 전문적인 점역·교정사가 필요합니다.

점역·교정사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교정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을 말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www.kbuwel.or.kr에서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점역교정사 시험 과목과 검정기준

점역교정사는 3급(국어), 2급(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중 1개 과목 이상 2개 과목 이하를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1급(영어, 음악, 수학/과학(컴퓨터)전 과목을 점역 및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으로 나뉘며,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당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NEWS ALBUM]

●● 여성부 지원 '시각장애인 여성 문화탐방' ●●

●●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주최 ●●

'제3차 어울림 등산대회'

●● 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주최, 어울림 걷기대회 ●●

●● 청주 MBC, '시각장애인 초청 단풍페스티벌' 개최 ●●

●● 시각장애체험 레스토랑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이병돈)가 11월 11일 개최한 이색 '시각장애체험 레스토랑' 행사입니다. 완전한 어둠속에서 시각 외 다른 감각을 이용해 식사를 하는 '시각장애 체험 레스토랑'은 앞으로 대학로 양키아노 시각장애체험 레스토랑에서 격주로 화요일 7시에 열립니다. www.giboo.co.kr에서 사전 예약하시면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문의 (02-2092-0065)

●● 제9회 장애인영화제 ●●

'눈으로 듣고, 귀로 보고, 마음으로 하나 되는 영화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아래 '제9회 장애인영화제'가 11월 3~5일까지 사흘 동안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새천년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포커스

VOICEYE
voiceye.com

시각장애인들에게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 무척이나 많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해줄 보조기구나 도우미가 있다면 보이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사법고시 2차 시험에 합격한 시각장애인 최영씨를 통해 비로소 시각장애인들이 공부할 텍스트 파일이 없어서 무척이나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시각장애인들에게 진작부터 모든 저작물의 텍스트 파일이 제공되었다면 아마 훨씬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시각장애인 골퍼 조인찬씨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주변 환경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시각장애인에게도 불가능은 도전 가능한 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 여건이 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 최영씨와 조인찬씨에게 박수를 보내며, 하루빨리 시각장애인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경제신문, 한겨레신문